

‘광주·전남 통합’ 원칙엔 찬성 속내는 복잡

뉴스초점 - 시·도 통합 논의

이윤섭 광주시장의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제안에 대해 전남도가 ‘공감대 형성 과 의견 수렴 선행’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지에 시·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보다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경북연구원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한 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분리보다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워 자생력을 갖추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며,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관련기사 3편〉

광주·전남도 우선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 이어서 논의 자체는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광주시, 사전 교감 없이 제안... 전남도 “진정성 보겠다” 신중
군공항 이전·2차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 공감대 이뤄야 가능

만, 당장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명목상으로는 통합을 바라지만 양측의 속내가 복잡한데, 이 시장의 ‘깜짝 제안’이 통합 상대방인 전남은 물론 광주지역 내부의 공감을 전제로 하지 못한 ‘설익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안은 쌓여있지만, 울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의회를 열지 못하고,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공식·비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광주의 경우 최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체를 빚자 2021년 이전을 약속한 민간공항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광주시는 가칭 ‘광주·전남 통합위원회’

를 구성해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우선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광주시의 진정성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다소 진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의 제안이 통합 상대방인 전남과의 사전교감 없이 이뤄진다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상호 신뢰도 쌓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통합 논의에서 전남도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광주의 반대로 성과를 보지 못한 ‘잔상’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현재 광주·전남을 둘러싼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이 시장과 김지사, 시·도 실무진의 잦은 만남과 협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시장의 제안에 지난 11일 전남도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는 이 시장의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제안과 관련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양 시도 통합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남도는 민선 1기인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2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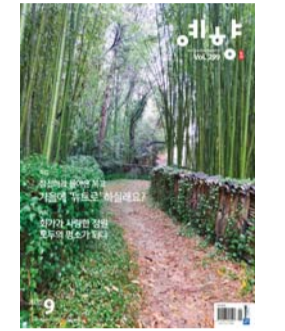
알립니다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통권 300호 발행합니다



창간호(1984년 10월호)



복간호(2013년 4월호)



299호(2020년 9월호)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잡지 ‘예향’이 10월호 통권(通卷) 300호를 맞습니다. 〈관련기사 22편〉 월간 ‘예향’은 5·18 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84년 10월, ‘전라도 사람들의 멋과 얼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탄생했습니다. 창간호 이후 월간 ‘예향’은 시대정신과 남도의 전통 문화, 현장의 예술인들을 다각적으로 다뤄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

다. 2002년 2월, 부득이하게 잠정 발행 중단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예향’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간한지 11년 2개월 만인 2013년 4월호(210호)로 복간하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월 만 들어지는 잡지 한권 한권은 남도문화 예술의 소중한 아카이브(Archive)이자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월간 ‘예향’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뭄에 도마르지 않는 샘이 깊은 물처럼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영업제한 일부 풀릴 듯

방역결과 따라 하향여부 결정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5일 연속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이번 주 방역결과에 따라 오는 20일까지인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향 또는 하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7편〉

광주시는 일단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하고, 영업이 금지된 일부 업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르면 14일께 일부 업소에 발효한 집합(영업)금지 등 행정명령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다만 아직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 불명 확진자 수가 29명에 이르고, 무증상 확진자도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0명이다. 다시 연장한 9일까지 일일 평균 확진자는 9.5명이었으나, 연장 이후에는 4.2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10일 5명, 11일 3명, 12일 2명, 이날 오후 2시 기준 0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4일부터 일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5일에는 집합금지 등으로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 보성읍에 명절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이번 연휴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지정 9곳 시 지정 11곳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최근 PC방 업주들과 광주태권도협회, 스크린 골프장, 필레테스, 풋살장 업주 등은 광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에 항의했으며, 시는

PC방에 한해 집합금지를 완화했다. 업체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업소 내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5·18 단체 - 국정원 ‘40년만의 만남’

박지원 원장, 3단체 초청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80년 5월 항쟁 이후 최초로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6편〉 특히, 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80년 5월 항쟁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그동안 은폐됐던 5·18 진상 규명에 국정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날게 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송선태 5·18진상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자료를 검색·발굴해 온 과정을 설명했고, 3389쪽에 달하는 기록물 45건과 영상자료 1건 등을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자료는 5·18 당시 사상·실종자 및 무기피탈 관련 기록물 20건, 북한 개입설 관련 기록물 25건 등이며 이 가운데는 시민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헬기 사격 목록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80년 5월 항쟁과 관련한 국정원 기록은 물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및 장세동 안기부장 행정 등과 관련된 자료들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위 문제 등과 관련이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weeks
고함판 고함판! 2주간 주름 잡는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n=82) 2019.09.16~10.17 2주간 사용 후 조사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